성탄절엔 '산타 부처' 만나보세요

법련사, 12월 23~29일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展

경내 불일미술관서 전시회
인천교구 문화원 후원으로
양 종교 미술인 6인 참여
'종교간 화합' 메시지 던져
교류 전시회 정례화 추진도

올해 성탄절도 10여 일 남짓 남았다. 이 시기가 되면 불교계는 성탄절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축하등을 점등하는 등 종교 화합에 나선다. 올해에는 특별한 전시가 추가된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들이 합동 전시를 통해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다.

승보사찰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주지 진경)는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 후원으로 오는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내 불일미술관 1 · 2관 전관서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전시회를 성탄절을 맞아 개최한다.

'아름다운 만남'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불교 미술인 이해기 · 김창균 · 박명옥 작가와 가톨릭 미술인 안경원 · 임정연 · 서정우 작가 6명이 30여 작품을 선보인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 전시회는 2003 · 2004 · 2007년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앞선 3번의 전시회는 종단 차원에서 이뤄진 전시회였지만, 법련사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반 신도와 미술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불일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구담 스님은 "좋은 기획전 테마를 고민하던 중 작가 한 분이 가톨릭과의 교류 전시회를 제안했다"며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지만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작가와 신도들이 나서서 전시를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불교 · 가톨릭 종교인들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전시 기획 과정을 설명했다.



◀이해기 작가의 작품 '윤회 열반'

양 종교 미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양질의 작품들이 다수 출품된다. 불교 측 미술인인 이해기 작가는 '윤회 열반' 을 주제로 연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어린이 그림을 불화에 콜라주한 그의 작품 중에는 전시 주제 맞는 '산타 부처' 도 있다.

작가는 세상과의 시각적 교감을 강조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정각(正覺)에 이르렀음을 성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서정우 작가의 작품 '바뇌성모님'

김창균 한국불교미술협회장은 '연화화생' 이라는 작품을 통해 수행으로 쌓아올린 공덕으로 인해 마침내 반드시 우리는 연화화생에 이르러 극락왕생하게 됨을 강조한다.

페이퍼 아트를 선보이는 박명옥 작가는 '수월관음도' 등을 통해 종이 조각 특유의 멋스러움을 발산하고 있다.

가톨릭 미술인인 안경원 작가는 유리공예를 통해 예수의 은총 속에 살고있는 기독인들의 영성을 표현한다. 이런 영성이 잘 나타난 것이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임정연 작가는 '희생의 어머니, 그리고 탄생' 에서 버려진 포도나무를 통해 어머니의 탄생 설화를 재설정한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성경의 의미를 확장시킨 것이다. 또한 서정우 작가는 나무 조각을 통해 신과의 소통 · 교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불교 · 가톨릭 미술인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극락정토의 발원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면서 "전시 주제인 이웃 종교간의 '아름다운 만남' 처럼 개별 작품들은 이미 훌륭한 발원과 성물이 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장 김선호 루카 신부는 "유사 이래 인간이 창작한 미술의 앞 자리에는 종교화가 자리한다. 종교화를 통해 미술은 발전했다"며 "숭고하고 장엄한 종교 미술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전시회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진경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 측에서 교류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 같은 교류 전시회가 교단 차원의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선사부터 청까지… 中공예 6천년史 '한눈에'

학고재, 중국고문물특별展

청 · 백자 나한 · 보살상 '눈길'
벼루 · 玉器 등 고문물 통해
중국인 일상 생활상 만나

중국은 대국(大國)이다. 단순히 영토만 큰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 천년 이어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중국 6000년 역사의 일편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학고재 갤러리는 12월 20일 본관 전시실에서 '함영저화(含英咀華)' 를 주제로 중국고문물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인 '함영저화' 는 '꽃을 머금고 씹는다' 는 뜻으로 진의를 깊이 음미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고문물이라는 꽃봉오리에 있는 꿀을 관람객들이 맛보길 바라는 전시 기획자의 의도가 주제에 내재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전시 규모는 방대하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용된 문물과 공예품들 131점이 전시에 출품된다. 오로지 중국 전통 문물과 공예품만으로 전시를 꾸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고재 갤러리의 중국고문물전시회에 출품된 '남송 · 원 청백유 수골 나한상' (사진 왼쪽)과 '덕화요 백자관음좌상' (사진 오른쪽)

학고재 관계자는 "마치 대만 고궁박물원이나 중국 유수의 박물관 전시를 갤러리 본관에 축소해 둔 듯한 전시"라고 자신했다.

유 · 불 · 선(儒 · 佛 · 仙)이 혼재된 문화 사상을 보여줬던 중국이었던 만큼 불교 유물도 다수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장 입구에 자리한 '남송 · 원대 청백유 수골 나한상' 이다. 12~14세기 작품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다.

고된 수행 생활에 몸이 야위어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지만, 형언할 수 없이 평온한 미소는 내면의 법열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앙상한 늑골 위로 자연스레 떨어지는 두루마기의 표현이 인상 깊다. 나한상의 머리 위쪽과 옷깃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 유독 맑은 청백색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자기에 유약을 부분적으로만 바르고 나머지는 백토를 그대로 구워내는 기법으로, 남송 시대와 원대에 특히 유행했다.

17세기 만들어진 백자관음좌상도 눈길을 끈다. 덕화요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10cm가 안되는 작은 상(像)에 관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세밀히 새기고 빚어냈다.

아득한 고대부터 문인들이 곁에 두고 아꼈던 문방사보와 각종 문방 용구에는 그들의 정신과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인장 재료로 가장 애호됐던 수산전황석과 창화계혈석 등으로 만들어진 인장들과 '송대 단계 반변산석 열수연' 등과 같은 벼루 등은 중국 문인들의 심미안(審美眼)을 알 수 있는 문물들이다.

학고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의 원류인 중국의 옛 문물을 깊이 있고 폭 넓게 살펴보고 시대를 초월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자양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국내에서 선보여질 기회가 적었던 다채로운 중국의 옛 문물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0-152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판화공모전 대상, 이상봉 '도담삼봉'

원주 고판화박물관 주최… 25일 시상식

강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전통판화 문화 발전위해 개최하는 제4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대상 문화재청장상에 이상봉 대구미래대 디자인계열 교수의 '도담삼봉' 이 선정됐다.

이 교수는 박한샘 동양화가의 수묵화인 '도담삼봉' 을 우리나라 자작나무에 한국의 전통 판각법으로 재현했다. 또한 수묵화의 세밀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건 먹을 이용해 탁본기법으로 인출해 냈다. 창작판화 부문 최우수상인 강원도지사상은 홍승혜 작 '진정한 강함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수상인 원주시장상은 이맹희 작 '매화와 대나무', 학생 부문 대상은 김진우 작 '인간' 에게 돌아갔다.



제4회 원주 전통판화공모전 대상작 '도담삼봉'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25일 오전 11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수상작들은 2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고판화박물관에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國博, '1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를 수요일 오후 6시와 7시부터 30분씩 운영한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 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특별전에 출품된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를 대표하는 문화재 350건 중 큐레이터가 선정한 전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상설전시관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 (7일 불교조각실),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14일 풍속화실), '도자기에 숨겨진 조상의 지혜와 기술' (21일 청자실), '황복사와 사리장엄' (28일 통일신라실)도 큐레이터와 대화하며 살펴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